

지역 소식통

정읍시, 2026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외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령별 수납 한도액에 맞춰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있다.

올해 연령별 상제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0~1세 영아에게는 월 2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며, 2세 영아의 경우 도비와 시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누리과정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세 유아에게는 월 14만 2000원, 4~5세 유아에게는 월 18만 1000원을 각각 지원해 부모들의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필요경비 항목들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6.25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

고창군이 지난 5일 공음면 선산마을 위령탑에서 제76주기 6·25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특히 올해는 태기준 고창경찰서장이 함께 참석해 추모의 뜻을 더했다.

이번 위령제에서는 유가족과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은 조용한 묵념과 헌화·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렸다.

공음면 선산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좌익과 우익 간의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수복과정 중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지역이다. 행사는 제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 및 추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희생된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사랑상품권 10억원 추가 발행

부안군, 중동 불안 대응·이달 40억→50억 발행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부안군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비상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부안사랑상품권 1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발행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한시적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억 원 늘려 운영한다. 또 1인당 월 충전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특정 인위이나 업종에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관내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고르게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발행은 오는 8일부터

운영된다.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조정되지만 12%의 높은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군민이 50만원을 충전할 경우 1인당 최대 6만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한도 하향 조정에 따라 오는 8월 이전에 이미 50만원 이상을 충전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전 지역에 ‘무료버스’ 시대 열겠다”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기본사회 4호 약속 발표... 농어촌버스 무료·통학택시 지원 확대 등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군민의 기본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4호 약속'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부안 전 지역에 '무료버스' 시대를 열어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교통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공약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부안군 관내 농어촌버스의 전 노선인 62개 노선(34대)이 무료로 운행될 예정



이다. 특히 이용 대상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과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인 '행복택시'와 '통학택시'의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통학택시의 경우, 관내 중·고등학교

중 △학교와의 거리가 2km 이상 △버스승강장 거리가 1km 이상 △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학생들의 편리한 등하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러한 교통 혁신 정책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망을 완성하여 부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벚꽃축제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성료

정읍시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읍 벚꽃축제 행사장에서 시민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 예방 운동(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운동(캠페인)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 자율적인 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정읍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전북안전보건네트워크 등 3개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축제장 내 마련된 홍보 공간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조·건설업 등 40여 종의 산업 현장 위험 상황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가상현실(VR) 안전 교육'은 작업 현장의 위험성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또한 방독면, 전자 감응형 귀뚜라기, 전동식 호흡 보호구(PAPR)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10여 종의 고성능 전문 보호구를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전시 코너도 큰 인기를 끌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콘텐트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이 운영됐으며,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라는 산재 예방 구호가 담긴 대형 퍼즐 맞추기 체험을 통해 안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북과대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CPR) 실습이 진행돼 시민들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신품종 고구마 '호풍미' 첫 정식

감곡면에서 전 과정 기계화로 진행... 농가소득 확대 기대

정읍시가 지난 2일 감곡면에서 국내 육성 고구마 신품종인 '호풍미'의 올해 첫 모 정식을 진행하며, 지역 고구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나섰다.

시는 이날 승복영농조합법인(대표 이경환) 농가에서 고구마 무병묘를 활용한 조기 재배 방식으로 정식을 마쳤다. 특히 두둑 만들기부터 비닐 피복, 정식, 약제 살포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해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심은 '호풍미'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이다.

지난해 정읍시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한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성을 이미 입증받은 바 있다. 호풍미는 덩굴쪼김병, 더듬이병 등



주요 병해충에 강할 뿐만 아니라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들이 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승복영농조합법인은 수확량이 많은 호풍미의 특성을 살려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재배 방식을 적용해 시장을 선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최종 선정

제철행복·청춘의독서·늪지의렌·긴긴밤

고창군 도서관은 군민과 함께 읽고 공감할 올해의 책 4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은 고창활문서도서관 개관에 따라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창군을 대표하는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소통하기 위한 독서문화 캠페인의 일환이다.

고창군은 4개 분야(일반문학 6, 비문학 5, 청소년 5, 어린이 5) 총 21권의 도서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온·오프라인 군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고창군민 2,424명

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부문별 최다 득표 도서를 올해의 책으로 확정했다. 선정 도서는 일반문학 분야 △제철행복(김신지), 비문학 분야 △청춘의독서(유시민), 청소년 분야 △늪지의렌(최상희), 어린이 분야 △긴긴밤(투리) 총 4권이다.

고창군은 4월 12일부터 도서관 주간인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올해의 책 작가 초청 강연, 독서 릴레이, 한 줄 감상평 쓰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 독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슈퍼 없는 교통 오지, 어디든 찾아갑니다'

고창군, 마을 곳곳 누비는 '고창동네점빵' 본격 운영

고창군이 지역 농촌마을을 누리며 생필품을 판매하는 '고창동네점빵'을 본격 운영한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림면 농안마을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동네점빵'의 첫 현장판매가 이뤄졌다.

동네점빵은 생필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판매 서비스다. 고창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고, 요일별로 각 마을을 순회한다.

앞서 지난 3월 30일 '고창동네점빵 개소식'과 지역 복지기관(고창지역자

활센터,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고창군노인복지관, 고창제기협회)가 참여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동형 점빵 차량 제작사, 차량결제전달, 일일점빵 매니저 위촉식도 함께 이뤄졌다.

고창동네점빵은 향후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상품 구성과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참여자에게 안정적인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복지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